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2월 9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16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강 주 현 -

저는 같은 동네에 사시던 은혜와진리교회 수구 역장님의 전도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저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며 성장하였습니다. 교회 학교 시절에 주일만 기다리며 부모님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부서에서 성가대 봉사를 했던 때가 성인이 된 지금 말로 다할 수 없이 소중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사춘기에 접어들자 주일에 교회학교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꾸준히 하였지만 예배 시간에 설교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로에 대한 고민이 크고 깊어져,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연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중에 방학 기간에 부모님을 따라서 참석한 주중에 예배에서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의 귀가 활짝 열리고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며 감화되었습니다. 주일에만 드릴 때와는 달리 주중에 배에도 참석하여 예배시간에 저의 걱정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위로와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불안해하던 마음을 감사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은사에 관해 말씀해 주실 때에 성령 충만한 신자의 방언기도는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셔서 방언의 은사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치 영화속 장면이 차례로 펼쳐지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 등이 저의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대하여 굳센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저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곧 뜨거웠던 마음이 시원해지며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스바냐 3:17)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였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궁금해하며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던 의심이 모두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날 이후로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예배와 봉사를 우선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으로서 더 성실히 학업에 임하여 복수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전공을 살려 일하면서 교회의 예배와 봉사에 힘쓸 수 있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섭리하여 주시므로, 원하던 일을 하면서 주중에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에 온전한 봉사를 하며 청년부 수련회와 국내외 선교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편을 만나 바라던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 모두 건강하여 자연히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길래 걱정하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난임 시술을 권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슬픈 마음이 들었지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시술을 받기로 결심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아이를 태중에 품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어서 둘째를 갖기 위해 여러 번 시술을 받았지만 거듭 실패하였습니다. 그 때마다 가족은 물론 교회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학교 등 함께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여 받은 시술을 통해 둘째 아이를 잉태하였고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옆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 첫째의 모습을 보노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를 택하여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성경대로의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은혜와진리교회에 소속하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고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 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 30 T. 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2권 (제7단원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제35과) 시한부 종말론이 비성경적인 이유

- 본문 : 데살로니가후서 2:1-12

• 요절 :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살후 2:2)

• 찬송 : 189장(새찬송가 257장), 193장(새찬송가 259장)

우리는 32과에서 ‘말세의 징조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즉 낙원에 이끌려 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때의 체험은 그에게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주었으므로 그는 어서 속히 그곳으로 가게 될 날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후 5:8)고 자기의 심경을 토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우리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 받아 공중으로 들림 받게 될 것이니 그야말로 소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시한부 종말론을 신봉하는 것과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과 그 때는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1992년도에 우리 사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적잖은 소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제시했던 예수님의 재림 일자는 거짓으로 판명이 났고 그리하여 시한부 종말 운동은 허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휴거의 꿈이 허무하게 쓰러질 그 순간까지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온 교회를 영적 계시에 어두운 집단이라고 매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주장이 거짓된 것이었음이 온 세상에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성경 말씀은 일점일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밖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는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 재림 일시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 24:36)고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일시를 알려 주시지 않은 까닭은 그 편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하여 알려 주시지 않은 까닭을 생각해 보면 짐작이 갈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죽을 그 날과 그 때를 안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곤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할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고로 오히려 언제 부름을 받더라도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갖추는데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직접 계시를 받는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2천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심심찮게 재림에 대한 거짓된 주장이 있어왔으며 심지어는 사도들의 생존시에도 예외 없이 거짓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살후 2:1~2)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언제나 휴거극(劇)은 직접 계시를 받는다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에 미혹된 사람들은 광신적으로 되어 가출, 사직, 학업중단, 재산헌납, 집단생활과 같은 현실 도피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불발로 끝나면 그들은 잠시 숨을 죽이고 있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다시금 고개를 들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 또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살후 2:9~12)는 말씀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기보다는 무엇인가 남달리 신기한 것을 추구하고, 호기심과 이기심을 만족시켜 주는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거짓 휴거극의 희생물이 되는 것은 마땅한 귀결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짐짓 주님의 재림을 가장 열렬히 대망하는 자들의 주장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사단의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일 뿐입니다.